

복음, 최고의 복지 (막 2:1-12)

1.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으며(1장 21절-2장 1절),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2절)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 (1) 사람들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고(막 1:26),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일으키셨으며(막 1:31),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막 1:34).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 (2)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λόγος)”를 원어로 보면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3) 교회가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비율(0.43%)이 매우 낮는데, 장애인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나눔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장애가 있는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중풍병자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며(5절), 연약함의 신비란 어떤 의미입니까?(고후 12:8-10)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고후 12장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 (1) 뇌신경 계통 장애(중풍병)를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닌 영혼의 고통입니다. 장애로 인한 통증/불편/외로움이 뇌신경 계통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물론 고통스럽게 하지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기쁨과 살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 (2)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약함이란 복음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사도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는 방편’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약하지 않은 비장애인보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눔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경험하는 연약함의 신비가 궁금하신 성도님에게 박신구 형제의 책을 추천합니다.

박신구, 『복덩이의 행복한 동행일기』, 엘림북스, 2026. (교회 사무실 혹은 도서부에 문의해 주세요)

3.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왜 나아갔으며, 그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2-4절)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 (1)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의 뇌신경 계통 장애입니다. 둘째,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결단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첫째, 장애인을 복음의 대상이 아닌 복지의 대상이자 동정과 배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둘째, 지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계단과 협소한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체장애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서문교회로 접근할 수 있는 점자블록은 끊어져있으며, 1층 로비에는 점자정보가 표기된 축지도가 없습니다. 점자 성경·점자 주보가 없으며 다락방 나눔지 · 교회 소개 브로슈어 · 교회의 각 실에도 점자 정보가 없습니다. 넷째, 청각장애인이 복음을 듣기 위해 필요한 수어통역사가 없습니다.

나눔

**장애인이 서문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까요?
복지의 관점(장애인편의증진법)이 아닌, 복음의 관점으로 나누어보세요.**

4.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5,9-10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 (1)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중풍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 (2)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서기관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 모두 어렵지만, ‘육신의 치유’와는 달리 ‘영혼의 치유’는 확인할 수 없기에 말만 한다면 더 쉬워 보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 모두 쉽습니다.
- (3)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나눔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에게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